

## 김훈의 <화장>과 <언니의 폐경>에 나타난 중년의 신체 변화와 가족 관계의 변화 양상: 중년의 위기감과 노년의 삶 전망을 중심으로\*

박선애\*\*·김정석\*\*\*

### ■ 국문 초록 ■

중년기는 긍정적 측면에서 보면 젊었을 때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정신적 여유와 경제적 안정이 조금씩 늘어가는 인생의 황금기로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여유와 지혜를 가지는 시기이다. 반면에 다가올 노년에 대한 두려움과 준비의 미흡함으로 인해 자아정체감의 혼란을 겪는 시기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김훈의 2000년대 초 발표된 <화장>(2004)과 <언니의 폐경>(2005)에 나타난 중년기 인물들이 자신과 타인의 신체적 변화 과정 속에서 삶의 위기감을 느끼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중년기 가족 관계의 변화에 따른 가족과의 분리 및 해체를 과정을 겪으며 정서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양상을 아울러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작품 속 중년 인물들은 신체적 변화 즉 노화 과정 속에서 남성과 여성이 성별 차이를 보이며 중년의 위기감에 대응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중년 남녀의 인식은 이전 시기의 생애 경험의 축적과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주변인의 죽음 경험 등으로 개인차도 드러났다. 또한 이 두 작품에 등장하는 중년 남성과 중년 여성들의 심리 상태를 살펴본 결과, 중년 여성의 우울감이 중년 남성보다 짙게 깔려 있었다. <화장>의 중년 남성 '나'는 아내의 육체적 고통을 지켜보며 죽음 문제에 객관적 거리를 두고, 세상의 모든 것은 헛것이고 가짜이며 가벼운 것이라는 인식으로 현실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나'는 아내와 딸과 같이 살아온 가정이나 사회적 성공을 얻기까지의 과거 삶에 대한 깊은 성찰 과정을 보이지 않았고, 앞으로 전개될 노년의 삶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준비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언니의 폐경>의 '나'와 언니는 홀로된 중년의 삶을 자매애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며 중년의 정신적 불안을 극복해 나가려는 노력들을 보였다. 특히 화자 '나'는 새로운 이성과의 만남을 통해 동질감을 바탕으로 노년의 고향에 대응해 나갔다.

작품 속 중년 여성들은 가족 관계의 변화로 노년기 홀로 지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서도 중년 남성에 비해 가족 내 역할 변동에 보다 빨리 적응해 나갔다. 하지만 두 작품 속 중년들 모두 다가올 노년의 일상에 드려질 삶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불안감과 두려움을 쉽게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김훈의 두 작품에는 중년기 신체 변화와 가족 관계의 변화로 인해 심각한 실존에 대한 회의와 정서적 혼란 및 고통 같은 위기감이 재현되며 삶의 경로를 재정립해 나가는 양상과 노년기 삶을 전망케 하였다.

주제어: 중년, 노년, 노화, 정서적 위기, 죽음 불안, 가족 관계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 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138)

\*\* 박선애(제1저자): 박선애는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며, 주요 관심분야는 한국현대소설이다. E-mail: psa224@hanmail.net

\*\*\* 김정석(교신저자): 김정석은 동국대학교 사회학과에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노년학이다. E-mail: chkim108@hanmail.net

## I. 머리말

문학은 특히 소설은 단순히 미학적 형식의 글쓰기가 아니라 인간의 정서와 행동을 투영하는 사회문화적 담론을 충실히 반영하는 공간이다. 소설 속에 재현된 사건이나 인물들은 한 시대가 구현해 내는 가치체계를 보여준다. 그러기에 소설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를 고려해 보면, 작품이 생산되고 유통되면서 그 속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주제의식이나 의미들은 한 사회가 다양한 방향으로 담론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소설 분석은 사회문화적 맥락과 만나며 당대 담론과도 만나는 작업이 된다.

본 연구에서 다룬 김훈의 <화장>(2004)과 <언니의 폐경>(2005)<sup>1)</sup>이 발표된 2000년대 초반은 베이비붐 세대<sup>2)</sup>로 일컬어지는 중년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화 사회<sup>3)</sup>에 진입을 앞둔 시점이었다. 그러다보니 사회적으로도 이와 관련된 담론들이 한창 팽배해 있었다. 김훈 역시 50대 중반의 중년의 작가였고, 그동안의 작품 성향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회 담론들을 일정하게 반영하며 작품화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두 작품에는 창작자인 작가의 중년기 존재론적 특성과 함께 당대 사회의 중·노년에 관련된 담론들이 구체적으로 재현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년기는 청년기나 성인 초기에 갖출 수 없었던 경제적 안정과 정신적 여유가 확보되는 ‘인생의 황금기’로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여유와 지혜를 가지는 시기이다. 그러나 중년기는 다가올 죽음과 노화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사회적 성취와 자녀의 성장을 어느 정도 이루지만 이제까지의 삶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자아에 대한 정체성이 도전받는 시기이다. 이런 중년기 도전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적응은 노년기의 삶을 전망 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Diana K.

- 
- 1) 김훈의 <화장>(2004)은 이상문학상, <언니의 폐경>(2005)은 황순원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 2) 1950년대 중·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세대로 유신독재와 고도의 경제성장,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5공 시대를 거쳐, IMF 경제위기를 겪은 ‘굴곡의 세대’, ‘위기의 세대’로 불린다(정성호, 2010:64).
  - 3) 유엔은 고령인구를 65세 이상의 인구로 정의하고 이들 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로 나누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속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통계청, 2005에 의하면 2000년 노인 인구 7.2%, 2018년에 14.4%로 고령사회에 들어서고, 2026년에 20.0%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05.1, “장래인구특별추계결과”).

Harris & William E, Cole, ; 최신타, 1985: 139-140 재인용).

이렇게 죽음과 노화의 필연성을 인식하며 삶을 재정비하는 중년의 모습에 최근 몇몇 작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 소설은 ‘중년층이나 노년층 인물들에게 상대적으로 무관심했거나 인색했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김경수, 2006). 이는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중년과 노년에 대한 부정적 의식과 맞물려 소설 창작에도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김훈의 <화장>과 <언니의 폐경>에 대한 기존 연구자들의 평가는 대부분 2000년대 작품들 중 중년의 삶에 강한 리얼리티를 보여주었다는 데 모아진다. 이들 논의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사 미학적 측면에서 어법, 문체, 모티프, 시점(목소리), 아이러니적 기법들을 가지고 치밀하고 강렬한 묘사에 주목한다(강혜숙(2008), 이미란(2009), 김은정(2011)). 둘째 철학적, 심리학적 접근으로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인간 육체의 유한성을 토대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실존론적 시각으로 살펴보고 있다. 소설 속 중년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존재론적 사라짐에 주목하며 우주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인식에 천착해 나갔다 (이필규(2004), 정재림(2005)). 셋째 중년 세대에게 나타나는 생애주기상의 특징과 인간의 몸에 관련된 대한 담론들을 사회학과 여성학적 시각으로 주목하고 있다 (김경수(2006), 송명희(2012), 최영자(2009), 허명숙(2011)). 이들의 논의는 중년의 삶에 나타난 죽음의 사회학적 의미와 성 상품화, 남성 화자의 시각으로 여성의 몸을 대상화, 타자화 하였다는데 주목한다. 또한 죽음을 자본주의적 개념의 하나인 물질성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기존 연구들은 김훈의 <화장>과 <언니의 폐경>에 나타난 중년 세대의 특징을 파편적으로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중년의 삶에 나타나는 생의 양면성과 생애주기상 경험되는 다양한 변화들을 심층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중년 남성작가의 시선으로 재현된 문학 텍스트에 주목하여 우리 사회 중년 후반기를 살아가는 중년 세대의 실상을 다가올 노년의 삶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는 작업은 의미 있으리라 본다.

중년기는 이전 생애주기보다 외모 변화 및 신체적 노화, 사회관계 및 가족관계의 변화, 부모·배우자·친구와의 결별 및 죽음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며 인생의 제2 전환기로서의 여러 특징들이 보인다. 이런 중년 세대의 다양한 경험과 2000년대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년의 삶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김

훈의 <화장>과 <언니의 폐경>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중·노년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 담론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두 작품 속 주인공들은 모두 50대의 중년 남성과 중년 여성들로서 중년기 후반에서 노년기 초반<sup>4)</sup>을 보내며 노화 과정을 뚜렷이 경험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특히 50대는 중년기의 다른 연령 집단보다 관심거리와 고민이 더 많은 연령 집단이다. 이들 작품에도 50대 중년 인물들의 삶을 둘러싼 건강문제와 부부문제, 사회와 가정의 문제, 자녀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형상화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작품 속 중년의 인물들이 자신과 타인의 신체적 변화 속에서 삶의 위기감을 느끼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모습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노화와 죽음에 대한 불안감 외에 중년기 경험하게 되는 가족과의 분리 및 해체가 작중 인물에게 정서적 위기를 가져오는 모습과 자아를 새롭게 인식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년 인물들의 삶을 통해 다가올 노년의 삶을 전망할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해 보고자 한다. 이는 중년을 인생 주기의 연속선상에서 노년과 통합적으로 파악해 보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 II. 소멸되어 가는 몸, 노화의 위기에 선 중년

중년은 생명의 유한성, 죽음과 노화의 필연성 즉 인간 존재의 한계를 온 몸으로 경험한다. 여기서 연구자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탄력을 잃고 쇠락해 가는 자신의 몸을 그저 속수무책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사실 인간의 육체는 항상 변화하고 있다. 다만 노화 과정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중년기에 찾아오기 때문에 이 시기에 자신과 가까운 이들의 질병, 노화, 사망 등에 직면하면서 중년들은 당혹감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중년 삶 전체에 혼돈을 경험하게 된다.<sup>5)</sup> 중년기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이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 즉 신체적 변화를 어떻게 수용해 가는가의 문제는 이후 죽음에 대한 인식과 노년의 삶에도 밀접한 관련

4) 작품 속 인물들은 평균 55세로 이 시기를 논자에 따라선 노년 초기로 보기도 한다. (한경혜·이정화, 2012: 8)

5) 발달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중년기는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그 절정에 달하는 한편, 노화에 따른 생물학적 변화를 가장 크게 느낀다고 한다. (Havighurst, R.J. 1972; 최광선, 1997: 162 재인용)

을 맺는다.

이 장에서는 50대 중년의 신체적 변화와 함께 가족이나 주변인의 죽음과 같은 부정적 생애 사건을 통해 간접적으로 죽음을 경험하면서 노화 불안과 우울감, 정체성의 혼란을 강하게 표출하는 중년의 인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김훈의 <화장>(《이상문학작품집》 28회, 2004)은 생물학적인 인간의 소멸 과정을 노화 과정에 발생하는 질병과 죽음에 대한 인식으로 보여준다. 작품 속 화자 ‘나’는 화장품 회사에서 상무직을 맡은 인물이다. ‘나’는 중년 남성으로서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인물에 해당하며 인생의 절정기를 살아간다. 하지만 ‘나’에게 중년기는 인생의 정점에 해당하는 사건도 일어나지만 충격적인 부정적 사건도 일어난다. 발달 단계상 중년기에 경험하기 쉬운 부정적 생애사건은 다른 연령대보다 그 영향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Aldwin & Levinson, 2001; 김경민·한경혜, 2004:125 재인용).

중년 남성 ‘나’는 아내의 오랜 투병생활과 죽음을 목격하면서 삶과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나’ 역시 ‘전립선염’이라는 신체적 능력 감소와 자각되는 여러 노화 증상들로 인해 중년의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나’는 중년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준비하며 과거의 삶을 되돌아 볼 인생의 전환기에 서 있다.

여기서 작가는 중년에 인식되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무거움과 가벼움의 대립적 이미지로 형상화하며 등장인물의 삶을 통해 인간 실존에 대한 성찰로까지 나아간다. 하지만 작품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작품 표면에 드러나는 대립적 이미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유들이 존재한다. 아내의 서사와 추은주의 서사에는 삶과 죽음의 문제가 상호연관 되어 가벼움과 무거움의 이미지들이 통합적이고 서로 중의성을 띤다. 아내의 투병 과정과 죽음은 딸의 모습을 통해 다시 생명의 영속성으로 표현되고, 추은주의 젊음 역시 과거 ‘고대 국가의 상실’이라는 은유에 빗대어 인간의 삶과 죽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늘 공존함으로 표현된다. 이는 작가가 죽음을 삶의 또 다른 측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화장>의 주요 서사 골격은 ‘나’의 아내가 뇌종양으로 죽어가는 과정과 죽음 이후 장례 절차 그리고 아내 사후에 ‘나’가 하는 주변 정리까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나’는 죽어가는 아내의 극심한 고통을 바라보며 상상적으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자 여직원 추은주의 젊음과 생명에 동경의 시선을 보낸다. 보통 인간의 신체적 노화가 시작되면 신체적 위기감과 함께 자존심의 저하, 무가치함, 자신감의 부족 등과 같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불안과 우울 등의 정서적 위기도

맞는다(김순이·이정인, 2007: 103). 작품 속 화자 ‘나’도 중년기 자신의 질병과 죽어가는 아내 그리고 젊음으로 대변되는 추은주를 통해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의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의 문제를 진지하게 묻고 있다. 인간의 젊은 몸, 늙고 병든 몸, 죽어가는 몸(죽은 몸)등 다양한 몸들이 등장하며 몸이 갖는 의미를 ‘환기’시켜 나간다(송명희, 2012). 그러나 작가는 <화장> 안에서 중년에 새롭게 인식되는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나’ 자신의 노화되어가는 몸과 아내의 소멸되어가는 몸 사이의 관계를 주체적으로 연관시켜 이해하기보다는 ‘여성의 몸’과 관련된 성(섹슈얼리티)과 생식성에만 집중한다. 소멸해가는 아내의 몸을 여성의 생식 및 배설 기능과 관련된 성기나 항문에 대한 묘사로 처참하게 그려나간다. 이런 작가적 태도에 대해 심진경(2005)은 여성의 몸에 대한 과도한 집중은 “자신의 남성성을 끊임없이 의식하는 남성의 과장된 몸짓”이라 말하였고, 김경수(2006)는 “복합적인 중년에 대한 탐색을 단순화시키고, 더러는 왜곡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았다.

죽은 아내의 몸은 뼈와 가죽뿐이었다. 엉덩이 살이 모두 말라버려서 골반 뼈 위로 헐렁한 피부가 늘어져 매트리스 위에서 접혔다. 간병인이 아내를 목욕시킬 때 보니까, 성기 주변에도 살이 빠져서 치골이 가파르게 드러났고 대음순은 까맣게 타들어 가듯 말라붙어 있었다. 나와 아내가 그 메마른 곳으로부터 딸을 낳았다는 사실은 믿을 수 없었다. 간병인이 사타구니의 물기를 수건으로 닦을 때마다 항암제 부작용으로 들뜬 음모가 부스러지듯이 빠져나왔다. 그때마다 간병인은 수건을 욕조 바닥에 탁탁 털어냈다. (p.12.)<sup>6)</sup>

어쩌다가 회사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당신과 마주칠 때, 당신의 몸에서는 젊은 어머니의 젓 냄새가 풍겼습니다. 젊고도 비린 냄새였습니다. 가까운 냄새인지 먼 냄새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냄새였지만, 확실하고도 모호한 냄새였습니다. 당신의 몸 냄새는 저의 몸속으로 흘러들어왔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당신의 몸을 생각했습니다. (pp.28~29.)

위의 인용들을 보면, 죽어가는 아내의 성기 묘사나 추은주의 몸 냄새 묘사를 통해 인간 육체의 소멸과 생성 의미를 일면적으로만 부각시킨 점이 없지 않다. 오히려

6) 이하 김훈의 <화장> 본문 인용 표시는 『이상문학작품집』(2004)에 의한다.

아내의 고통스런 모습과 ‘나’의 신체적 통증을 서로 긴밀하게 연관시켜 노화와 죽음을 둘러싼 중년 현실에 더 깊이 천착해 들어가는 것이 주제의식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중년의 아내와 ‘나’의 모습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젊은 여성 추은주의 모습과 대비하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생애 발달단계로서 중년기에 인식되는 죽음 문제가 한 인간의 전 생애 과정을 통해 재현되지 못하고 있다. 생성과 소멸, 젊음과 늙음의 대비적 이미지에만 기대고 있다. 이러한 작가적 시각은 중년 남성 ‘나’의 삶을 형상화함에 있어서도 인생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을 드러내는 데 한계를 보인다. 그러다 보니 중년의 죽음 문제가 인간 본래의 실존적 문제로 추상화 되어 삶의 불가해성만으로 강조되어 나타난다.

이런 작가적 시각은 ‘나’의 시선을 통해 ‘나’의 노화 과정과 아내의 육체적 고통과 죽음 문제를 비교적 담담하고 냉정한 태도로 그려내게 한다. 인간 유기체의 소멸에 대한 ‘나’의 객관적 거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아내의 죽음을 예고된 죽음으로써 완화되고 개별화 된 형태로 수용하고 있는 자세이다. ‘나’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충격이나 슬픔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나’는 현대사회의 중년으로서 아내의 죽음 과정에서 상실감과 연민의 감정을 억제하고 분출되는 슬픔을 거부한다. 한 논자는 오히려 이런 ‘나’의 태도를 소멸되어가는 육체와 죽음에 대한 부적응의 모습으로 파악하기도 한다(허명숙, 2011: 352).

중년 남성 ‘나’는 점차 삶 속에 공존해 있는 죽음의 진실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세상은 헛것이며 생명은 확실함과 모호함 사이에서 존재하며 소멸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한다. 이런 인식의 바탕엔 삶과 죽음의 문제를 철저히 개개인의 문제로 여기는 현대사회의 면모가 깔려있다. 중년기 노화 과정에서 소멸되어가는 몸을 그동안 살아온 삶과 분리된 시각으로 바라본 것이다. ‘나’와 같이 중년기 가족과 주변인의 죽음 경험은 노년기 죽음에 가까워지면서 발생하는 죽음 불안감을 극복하고 수용해 나가는 데 영향을 준다.

인간은 작품 속 ‘나’의 아내 죽음처럼 아무리 예고된 죽음이라 하더라도 막상 죽음의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나 ‘나’는 장례 과정에서 회사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며 어떠한 동요도 표출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아내가 좋아했던 개 ‘보리’를 안락사 시키면서 죽음 불안감을 무화시킨다. 심지어 ‘나’는 아내의 죽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인간의 슬픔과 고독감 같은 정서를 통제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동안 ‘나’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던 아내의 오랜 투병

생활이 정리되자 아내의 장례 기간에 들어온 부의금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며 일상에 빠르게 적응해 나간다. 밀렸던 회사 업무인 여름 상품 광고 이미지를 ‘내면 여행’보다는 ‘가벼워진다’로 결정하며 ‘모처럼 깊이 잠’에 빠진다. ‘내 모든 의식이 허물어져 내리고 증발해 버리는, 깊고 깊은 잠’을 잔다.<sup>7)</sup> ‘나’는 일상에 빨리 적응해 가면서 아내의 시신을 화장(火葬) 후 느꼈던 가벼움처럼 잠 속에서 가벼움을 경험한다. 하지만 잠에서 깨는 순간 ‘나’는 아내와 딸이 없는 중년의 고독한 현실과 죽음 불안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중년 남성 ‘나’의 일상을 쓸쓸함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화장>에 나타난 아내의 죽음 과정은 현대사회의 죽음에 대한 담론들이 반영되며, 철저하게 개별화되고 사물화 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노베르트 엘리아스, 2011). 현대사회의 물질성이 개개인의 삶과 죽음의 문제에 영향을 끼쳐 죽음이 더 이상 애석하거나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실존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대사회에서 죽음이 신속하게 삶의 영역에서 분리되고 최대한 절제되어 억제된 형태로 취급되어지듯 아내의 주검도 병실에서 장례식장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장례 절차에서 살아있는 생명과 죽음의 신속한 격리, 장례식장과 화장장의 상업화된 광경이 그러하다. 남편인 ‘나’ 역시 빠른 속도로 아내의 죽음 흔적을 자신의 삶 영역에서 지워 나간다.

또한 작가는 죽음의 단계에 있는 병든 아내의 육체를 무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죽어 가는 육체의 물질적 현상을 강조하여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한다. 앞에서 살펴본 기존의 연구자들 역시 죽어가는 아내의 몸에 대한 묘사에서 받은 충격으로부터 작품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화장>의 죽음 관련 묘사가 그동안 우리가 인간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것 그리고 정상적이라고 여겨왔던 것들로부터 상당히 벗어나 있음에 주목한다. 인간이 죽음에 가까워지면 동물적 모습을 더욱 노출하고 수치심이 증가하며 죽음에 대한 혐오감에 휩싸이는데, ‘나’의 아내 역시 자신에게서 풍기는 악취로 인해 극도의 수치심과 자책감을 드러낸다. 이는 아내가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병과 죽음에 대해 주체적이지 못하고 현대사회의 타자화된 죽음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음이다.

여기에 작가는 노화와 관련된 죽음의 형상화에 후각적 기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섬뜩할 정도의 사실성을 확보한다.<sup>8)</sup> 후각적 기법은 생명과 죽음에 대한 리얼리티를

7) ‘나’는 신체적 노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죽음 불안 즉 중년의 무거운 현실을 잠이라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 잠깐 동안이지만 가벼움으로 경험한 것이다.



극대화 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산업화된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년과 죽음을 둘러싼 사회 담론들이 다른 양식으로 재현될 때 후각적 이미지가 자주 동원된다. 암과 같은 질병으로 죽어가는 인간의 점진적 부패는 병이 깊어지면서 심한 악취를 풍기고 이런 냄새들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반감을 더욱 불러오게 된다. 이런 반감은 선진 사회가 그 구성원들에게 냄새에 대한 고도의 민감성을 주입해 놓았기 때문이다.<sup>9)</sup> 아내의 몸에서 풍기는 후각을 마비시킬 정도의 냄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오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노화라는 자연적 부패 과정이 죽어가는 자에게나 그것을 바라보는 살아있는 자들 모두에게 폭력적임을 의미한다 (노베르트 엘리아스, 2011: 125).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무력한 존재란 인식을 현대사회는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죽어가는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는 ‘나’는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죽음을 간접 경험하며, 죽음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젊은 여성 추은주의 몸을 강박적으로 상상하며 욕망한다. ‘나’에게 죽음은 생명과 비교할 때 추악하고 끔찍한 고통으로서 무의식적으로 억압하고 은폐시키지만 표면적으로는 냉정함을 유지한다. ‘나’는 이미 노화에 따른 질병을 앓고 있어 죽은 아내와 가까운 거리에 있고 아내처럼 죽음 이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속히 격리되고 배제될 것을 잘 안다. 하지만 여전히 ‘나’에게 아내의 죽어가던 몸에서 났던 ‘뒤바뀐 냄새’의 기억이 아내의 장례식 내내 아내의 매마른 육체와 함께 계속 떠오르며 죽음의 불안감을 되살리고 있다.

아내는 두통 발작이 도지면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시퍼런 위액까지 토해냈다. 검볼처럼 늘어져 있던 아내는 아직도 저런 힘이 남아 있을까 싶게 뼈만 남은 육신으로 몸부림을 치다가 실신했다. 실신했으면 바로 똥을 썼다. 항문 괄약근이 열려서, 아내의 똥은 오랫동안 비실비실 흘러나왔다. 마스크를 쓴 간병인이 기저귀로 아내의 사타구니를 막았다. 아내의 똥은 멀건 액즙이었다. 김 조각과 미음 속의 낫알과 달걀 흰자위까지도 소화되지 않은 채로 쏟아져 나왔다. 삭다 만 배설물의 악취는 찌를 듯이 날카로웠다. 그 악취 속에서 아내가 매일 넘겨야 하는 다섯 중

8) 김훈의 <언니의 폐경>에서도 후각적 기법이 중년 여성들의 삶과 인식 세계를 재현해 나가는 데 유용한 문학적 기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9) 노베르트 엘리아스도, “현대인들의 감각에 문명의 청결, 위생에 대한 강박은 더욱더 죽음을 회피하게 만들고 격리시켜 놓고 있다.”고 주장한다.

류의 약들의 냄새가 섞여서 걸들었다. 주로 액즙에 불과했던 그 배설물은 흘러나오자마자 바로 기저귀에 스며들고, 양이래 봐야 한 공기도 못 되었지만 똥 냄새와 약냄새가 섞이지 않고 제가끔 날뛰었다. 계통이 없는 냄새였다. 아내가 똥을 흘릴 때마다 나는 병실 밖 복도로 나와 담배를 피웠다. (p.20.)

아내가 앓다가 죽음에 이른 질병인 중양(암)은 인간의 노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질병 중 하나다. 아내의 의사는 중양이란 생명체 현상에서만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나’는 이런 의사의 말을 걸음으로는 무시해 버리지만 그 말의 진실성에 강한 두려움을 보인다(정재림, 2005). 그런데 작가는 아내의 죽음 과정을 서술하던 객관적 태도와는 다르게 추은주라는 젊음과 생명의 이미지를 그려나가는 데 있어 극적 독백과 경어체 서술로 주관 과잉의 서술 태도를 보인다. 생명을 대변하는 추은주의 젊은 몸은 중년에게 더 이상 소유할 수 없는 욕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주관적 관념으로 밖에 그려지지 않는다. 추은주를 향한 ‘나’의 목소리는 비현실적 즉 환상적 기법으로 표현되고, ‘나’의 의지는 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추측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서술어’로 반복된다(정재림, 2005). 추은주의 외모 묘사에서도 ‘푸른 정맥’이나 ‘채액에 젖는 노을 빛 살들’과 같이 생명이나 생식에 관계된 여러 어휘들이 강조된다. 그러다 보니 아내의 고통과 추함에서 오는 죽음의 슬픔과 비교해 생명의 기쁨을 갈망하는 ‘나’의 모습은 추은주의 서술 속에서 닿을 수 없고 상실해 버린 생명에 대한 추상성으로 표출된다. ‘나’는 추은주와 같은 젊음에 ‘조바심’을 갖고 애타게 불러보지만 중년의 무기력한 존재로 더욱 확인될 뿐이다. 반면, 아내와 관련된 서술이나 묘사는 ‘해부학 교실에 걸린 뼈’나 ‘메마름’과 같은 어휘들로 채워진다. ‘나’에게 추은주는 ‘살들이 빚어내는 풋것들’의 시간에 존재하지만, 아내는 처참하게 죽음 앞에서 질병으로 고통스러워 ‘의식이나 수치심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간’을 지나며 소멸에 이르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작품은 죽음 이후 화장(火葬)을 통해 가벼워지는 생명의 소멸과 일상적 삶 속에서 생명에 덧칠하며 살고 있는 무거운 화장(化粧)의 세계를 그려 나갔다. 작품 속 중년 남성 ‘나’는 무겁게 전개되는 현실을 역설적으로 ‘가벼움’에 기대어 극복하고자 한다. 즉 ‘나’는 인간에게 주어진 소멸의 불가피성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면서 내면 깊숙한 곳에선 무거운 현실을 억압하고 걸음은 일상적 가벼움으로 대응한

다. 죽음을 궁극적으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치한 생물적 현상으로 바라보며 현실적 삶에 순응하며 개개인의 실존적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기에 '나'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허무적 색채가 강하다. 여기엔 현대사회가 생명 현상에만 집중하고 죽음을 가벼움 즉 무의미성으로 파악하는 사회 담론도 한 몫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고 있는 중년 남성 '나'에게 중년기 생애 과정상 나타나는 신체 변화나 가까운 사람(배우자)의 죽음 경험은 큰 심리적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까운 이의 죽음 경험은 한 중년기는 청년보다는 스트레스 조절 능력이 좋지 않고 노년보다는 상대적으로 죽음 관련 사건을 덜 경험하였고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는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력이 더욱 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한경혜·이정화, 2012: 127).

<화장>이 중년의 노화와 죽음의 문제를 남편인 화자 '나'와 아내의 죽음 과정을 통해 접근하였다면, <언니의 폐경>은 노화 현상인 폐경 혹은 갱년기를 겪고 있는 두 자매의 내면세계와 가족원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언니는 55세에 갑작스런 비행기 사고로 남편과 사별하고 그 충격으로 폐경 증상을 겪으며 심한 내적 갈등 속에서 갱년기에 적응해 나간다. 이런 언니를 바라보는 동생 '나' 역시 노화 현상을 경험하면서 다가올 미래와 죽음의 불안감 속에서 중년의 위기<sup>10)</sup>를 절실하게 경험한다. 여성의 폐경은 중년 여성들에게 노화 증상의 확실한 경험으로서 그동안 살아왔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켜 자아정체감에 변화를 초래한다. 중년 여성들의 신체적 변화는 남성보다 일상적 삶에서 위기감을 크게 겪게 하고, 인생의 전환기를 맞아 자신의 과거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여성의 '폐경'<sup>11)</sup>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고유의 역할을 상실하는 노화 현상으로서 남은 생의 불확실함을 나타내주는 몸의 신호이기도 하다. 이런 노화 현상은 중년 여성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당혹감과 고통을 안겨주며 심리적 불안감을 갖게 한다.

10) 중년의 위기를 모든 개인이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보편적 위기로 보는 견해와 개인적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보편적 위기 부재의 견해가 있다. 특히 보편적 위기로 보는 견해에는 40세를 전후로 내적 세계로 관심이 전환되면서 자아정체감의 혼란으로 인한 위기를 겪게 된다고 한다. 중년기에는 전 생애 중 가장 큰 위기의 정도를 경험하며 또한 다양한 위기를 단계적으로 겪게 된다. (김형일, 2010:136)

11) 폐경은 다양한 신체적 변화와 골다공증, 요실금과 같은 질병을 유발시키고 불안, 우울과 같은 정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김예경, 2008)

작품 속에서 중년 여성인 언니와 ‘나’는 폐경 증상과 함께 요실금, 미각 쇠퇴, 근육 노화, 탈모, 골다공증, 관절염 등의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두 자매가 겪고 있는 폐경 전후의 갱년기 만성 질병들은 노후 생활의 신체적 조건으로서 이후의 삶 즉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영위하는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언니의 ‘폐경’ 증상이 시작된 것은 2년 전 남편과 사별하면서부터이다. 이후 언니는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런 출혈을 종종 겪을 때마다 몹시 당혹스러워 하며 심적 동요를 경험한다. 언니의 ‘폐경’ 증상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의 폐경 증상은 단순히 신체적 변화로서 뿐 아니라 노화 과정에 적응하는 사회문화·심리적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며 나타나고 있다(김애경, 2008).

그런데 작가는 작품 속에서 중년 여성의 폐경을 ‘회귀성 어족’에 비유하며 임신과 출산의 임무를 다한 후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묘사한다. ‘폐경’ 전후의 중년 여성의 신체적 변화를 생식과 생산적 측면에서만 보고 있는 시각은 앞서 살펴보았던 <화장>에서 젊은 여성과 소멸해가는 아내의 육체를 여성의 성기와 생식성으로 단순화시켜 대비하였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는 한국 사회문화에 존재하는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시각이 작가의 창작 과정에서 중년기 여성의 변화를 생식과 성에 관련된 육체성에만 집중하게 만들었다.

폐경을 경험하는 대부분의 중년 여성들은 잠깐 혹은 길게 여성으로서의 정체감을 상실하면서 인생이 끝난 것 같은 허무감에 빠진다. 언니와 ‘나’도 폐경과 갱년기 증상들을 경험하며 우울한 나날 속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우리 사회에선 여성의 갱년기 신체적·정신적 질병들과 함께 중년 여성들을 부정적 담론으로 채색해 왔다. 중년 남성이 사회적으로 능숙한 생산성을 발휘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면, 중년 여성은 항상 ‘질병 혹은 아픔이라는 은유’로 그려져 왔다. 중년 여성의 몸에 대한 부정적 이데올로기가 남성보다는 폭력적인 배제와 차별로 경험된다(김창엽 외, 2004:159). 여기서 우리 사회의 중년이라는 담론에 성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중년 남성 ‘나’의 남편도 노화라는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지만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승장구하며 사회적으로 성공한 지위를 누린다. 또한 중년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젊은 여성과의 외도로 채워나간다.

하지만 언니와 ‘나’ 같은 중년 여성은 신체적 변화로 시작된 중년기를 생애 전반에 대한 의문과 삶을 재평가 하며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무력하게 보낼 뿐이다. 이들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허탈감, 좌절감으로 더욱 더 감각 기능의 저하

와 신체 기능의 약화를 경험한다. <화장>의 중년 남성 ‘나’에 비해 <언니의 폐경>의 중년 여성 두 자매의 삶은 더욱 우울하기만 하다. 언니와 ‘나’에게 시작된 중년의 신체적 변화들은 자아 존중감을 떨어뜨리고 있다. 여기엔 우리 사회가 젊은이에게 요구되는 외모 및 건강상의 조건들을 기준으로 중년과 노년을 바라보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 몫 한다.

언니는 폐경 증상을 경험하면서 특히 이전 시기와는 다르게 수다와 음식에 유난히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동생인 ‘나’가 생각해도 언니의 갑작스런 수다는 중년 일상의 외로움과 권태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전제로 한 수다는 아니다. 중년 여성들에게 수다<sup>12)</sup>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치유하고 생명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하는데, 언니의 수다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년은 자기의 한정된 경험 또는 또래 집단, 주변 집단의 경험 외에는 사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대해 잘 모른다. 소통의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화자 ‘나’가 언니의 수다를 평가하는 대목에서도 이러한 수다<sup>13)</sup>의 양상이 잘 드러난다.

내 아파트에 오는 날이면 언니는 늘 베란다 창문 앞 테이블에 앉아서 저녁나절을 보냈다. 저녁 무렵에 언니는 좀 수다스러워졌다. 수다라기보다는 말문이 겨우 트이는 모양이었다. 여성잡지의 갱년기 특집을 보니까 폐경을 맞는 여자들은 저녁 무렵에 근거 없는 불안을 느낀다고 적혀 있었는데, 언니의 저녁 수다가 그 불안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저녁 무렵에 언니가 하는 말은 거의가 하나하나한 말이었다. 언니의 말은 노을이나 바람처럼 종잡을 수가 없었고 멀게 들렸다. 들렀다기보다는 스쳤다고 해야 맞겠다. 나는 늘 언니의 말에 대꾸할 수가 없었다.(p.15.)

언니의 수다는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럽고 모호한 상태로 대화 상대에게 전해진다. 독백에 가까운 언니의 수다는 ‘노을이나 바람처럼 종잡을 수가 없’었으며 공감할 수 없는 거리감으로 느껴진다. 언니의 말은 언니 혼자만 알아들을 수 있고, 언니 혼

12) 중년 여성의 ‘수다’를 경험 공유의 소통과정으로 인식하며 그 중요성을 논의한 연구도 있다(김정영, 2010).

13) 한국문학에서 중년 여성의 수다를 통해 일상의 삶과 그 안에 담긴 진실성을 재현하고 있는 작가로는 박완서를 꼽을 수 있다. 중년 여성들이 전업주부로 살아가면서 부딪쳤던 일상의 체험들이 수다를 통해 녹아져 있다.

자에게만 유효한 말로써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 같다. 언니의 수다는 ‘죽음의 우연성과 불가항력성에 대한 항변’으로 들린다(정재림, 2005). 언니와 같이 폐경을 경험하는 중년 여성에게 나타나는 의욕 저하와 우울감, 그리고 수다와 불면증은 불안정한 정서에 기인한다. 반면에 언니의 폐경 경험은 남편의 죽음과 함께 부정적 위기감만 조성하지 않는다. 파크스(Parkes, 1988)도 가족원의 죽음과 같은 상실의 생애 사건은 개인의 자아개념을 수정하고 적응시킬 것을 요구하지만, 이를 반드시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한경혜·이정화, 2012)고 말한다. 이를 통해 자기 성찰이나 진지한 삶의 반성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아 통합적 관점에서 볼 때, 이전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가정 내 역할을 재조정하고 개인의 내적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 이는 중년에 노년을 준비하고 자신의 인생 전반을 성찰해 나가는 발전적 모습으로써 노년의 삶을 긍정적으로 전망케 한다.

언니의 경우도 ‘냄새만 맡고도 간을 알 수’ 있고 ‘내 머플러에 붙은 앙고라 털 몇 개를 떼어’주며 남자 옷에 털을 붙여서 보내지 말라는 등 삶의 연륜이 묻어 있는 지혜를 보여준다. 언니는 일상생활에서 하찮고 사소한 것들에 예민한 모습을 보이며 중년기 신체적 감각의 쇠퇴와 같은 부정적 변화에 대응해 나간다.

냄새만 맡고도 간을 알 수 있는지, 언니의 말은 창밖의 저녁 안개 냄새를 맡고 하는 말처럼 들렸다. 언니가, 애 그거 좀 싱겁지 않겠니? 라고 말했어도 아마 같은 말이었을 것이다. 언니의 등 너머로 사위는 노을이 어둠에 밀려나면서 하늘 가장자리에 겨우 걸렸고, 넓은 들을 건너가는 송전탑의 불빛이 어두운 산 쪽으로 숨어들고 있었다. 시간이 산들을 해 지는 쪽으로 데려가는 것인지, 저녁 무렵에 강 건너 산들은 점점 멀어 보였다.

-애, 불 낮추고, 물 반 컵만 넣어. 국물이 좀 있어도 괜찮아.

라고 언니가 말했을 때 나는 언니가 노을 속으로 사라지는 저녁 비행기처럼 저무는 하늘로 빨리 들어갈 것만 같은 조바심을 느꼈다.  
(pp.21~22.)

그러나 언니는 중년 여성으로서 삶의 연륜을 보여주면서도 여전히 아이들처럼 ‘감감한 어둠을 무서워해서 잘 때도 늘 전기스탠드의 작은 등’을 켜야 하는 등 죽음의 공포에 시달린다. ‘폐경’은 그만큼 중년 여성에게 삶의 불확실함을 보여주는 육체

적 징표로서 불안감의 실체로 작용한다. 작품 속 ‘나’와 언니의 아파트는 강을 마주하고 있다. ‘나’의 아파트에서는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물의 흐름을 볼 수 있다. 언니와 ‘나’의 아파트는 중년과 노년의 삶을 두 자매가 서로 의지하며 소통하고 교류하기에 적당한 공간이다. ‘나’의 아파트에서 보이는 강의 하구 모습은 중년 여성의 모습과 비유적으로 연결되며 인생의 전환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강의 하구에 나타나는 물살의 급격한 동요는 중년 여성의 삶에 나타나는 내적 동요와도 닮아 있다. 언니는 한강의 물이 들어오고 빠지는 것과 자신의 몸이 변화하는 과정을 자연의 순리에 연결시키며 노화와 죽음 문제에 생의 비밀이라도 목도한 듯 초연한 삶의 자세를 보인다.

언니는 혼자서 중얼거리는 헛소리처럼 말했다.

-자다가 깬데, 갑자기 눈앞에 달이 보였어. 내가 꼭 저승에 와 있는 것 같더라. 여기가 어딘가……누굴 부르려고 했는데, 그게 누군지 떠오르지가 않았어. 소리도 나오지 않았지. 그러더니 몸속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면서 왈각 쏟아졌어. (p.27.)

반면 ‘나’의 경우는 아직 직접적인 폐경 경험은 없지만 5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몸의 안쪽에서부터, 감당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우울과 어둠이 안개처럼 배어 나와서 온몸의 모세혈관을 가득 채운” 혼미한 심리적 상태를 경험한다. 중년 여성으로서 ‘나’의 정신적 방황은 “어두운 방 안에서 하루 종일 혼자 누워서” 유편의 시간을 보내게 한다. ‘나’는 갱년기 우울증을 경험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일상생활을 유지해 나간다.

그러나 두 자매 사이에도 “내 몸의 느낌을 언니에게 설명할 수가 없었고 불덩이 같은 것이 왈각 쏟아져 나온다는 언니의 느낌에 닿을 수 없”는 개인차가 존재한다. 중년기의 자아정체성은 신체 감각을 계기로 하는 단일 과정이라기보다는 각 영역의 심리적 변화나 계기가 되는 다른 외적 요인이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된다. 언니와 ‘나’의 경우도 50대의 갱년기를 맞은 중년 여성으로서 공통적으로 노화 과정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전의 결혼생활 만족도나 사별 및 이혼이라는 경험들의 차이로 인해 갱년기 심리적 변화에 서로 다른 면모를 보인다. 이렇게 중년기 자아정체성 전개의 최초 단계는 신체 변화에 따른 자아 정체성 기반의 동요에서 출발한다

(Okamoto.Y. 1985; 최광선, 1997: 179).

언니는 남편의 죽음으로 갱년기 내내 막연한 불안감을 표하며 위태로움과 초연함 사이를 오가고, 그런 언니를 곁에서 지켜보는 ‘나’ 역시 곧 폐경이 시작될 것이고 다양한 노화 현상을 겪어 나가며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나’가 목격한 중년의 죽음 경험은 언니가 경험한 죽음과는 다르다. 언니처럼 중년기 갑작스럽게 찾아온 남편의 죽음이 아니라 노년의 수를 누리고 삶을 평화롭게 마감한 시어머니의 죽음이다.

시어머니는 관절염과 골다공증을 오래 앓으셨다. 말년에는 기관지 천식과 녹내장이 겹쳤다. 시어머니는 밤중에 자다가 돌아가셨다. 그분의 의식 속에서 잠과 죽음은 구별되지 않을 것이었다. 시댁 문중은 흠이 다 녹은 화창한 봄날을 택해서, 잠 속에서 또 잠이 오듯이 돌아가신 노인의 죽음을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염포로 뽕뽕 묶인 그분의 시신은 어린 아기처럼 작았다. 관 속에 모시니까, 빈자리가 너무 커서 염습사는 한지 두루마리를 포개서 머리맡과 발치를 채웠다. 시어머니가 염을 다 받으시고 종이 꽃신을 신으실 때 나는 그 죽음의 가벼움과 시할아버지 제삿날의 들기름 냄새를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다. (pp.35~36.)

시어머니의 노년은 ‘나’의 멀지 않은 미래의 노년의 모습이기도 하다. 시어머니는 노년의 많은 질병들로 인해 고통 받으면서도 시골 종갓집 며느리로서 삼대 봉사(제사)를 모시며 친척들까지 챙기는 고단한 삶을 살았던 분이다. 그런 어머니가 ‘잠 속에서 또 잠이 오듯이 돌아 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시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제삿날의 들기름 냄새로 기억하면서 노년의 평화로운 죽음을 보게 된다. ‘나’가 중년에 경험한 죽음은 언니가 경험한 무자비한 ‘죽음’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기에 두 자매에게 존재하는 죽음에 대한 불안감 역시 질적 차이가 있다. 그런가 하면 언니와 ‘나’의 중년의 삶에서 노년 삶의 질과 연관시켜 볼 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도 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 배우자와 함께 살았을 때의 경제력<sup>14)</sup>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노

14) 중년의 위기에는 계급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년의 개념에는 ‘성공한 중산층’이란 이미지가 얽혀 있다. ‘한국적 근대’의 성공지상주의가 중산층을 표준으로 발전한 탓이라 볼 수 있다(김창엽 외, 2004: 157).



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중년의 고민 중 가장 큰 고민이 경제적 압박이고 이후 노년 삶의 질과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작품 속 두 여성은 경제적 문제에서 오는 심각한 위기는 경험하지 않는다.

결국 중년기는 신체적·생물학적으로 노화가 시작되면서 유한한 생애의 남은 시기 동안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로, <화장>과 <언니의 폐경>에 등장하는 중년 남성과 중년 여성은 신체적 위기 앞에서 허무의식을 바탕으로 소멸해 가는 몸을 경험하며 질은 우울감에 빠진다. 여기에 인생 주기 연속선상에서 노화와 죽음을 수용해 나가려는 모습도 단초적이지만 나타난다. <화장>에는 현대 사회의 물화된 가치가 죽음의 문제에 상당부분 투영되어 ‘나’의 감정과 행위를 통제하고 있다. ‘나’는 아내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자신 몸의 특성을 더욱 더 숙고하고 죽음을 목격하면서는 몸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은폐된 개인적 경험으로 인식한다(크리스 쉘링, 1999). <언니의 폐경>의 언니에겐 남편의 죽음에서 비롯된 삶의 허무함이 죽음에 대한 초연한 자세로 나타나며 일상을 통해 죽음 불안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다. 그러나 동생 ‘나’의 경우는 갱년기 노화 과정을 겪으며 일상생활에 우울감을 표출하지만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막연한 두려움으로 표출하지 않는다. 죽음을 자연스런 삶의 과정으로 인식한다. ‘나’는 중년기 신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긍정적 시각으로 자아정체감의 성숙 가능성을 보여준다. 비록 육체는 노화에 접어들고 있지만 인생을 내리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단계를 매듭짓고 새로운 단계로 전환하는 시기로 인식한다. 화자인 동생 ‘나’는 50대 중년 여성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고 부정적이거나 복잡한 모습까지도 인정하려 한다. 자아실현이나 성숙의 특성을 보여주는 인물이다(Ryff, 1989; 한경혜·이정화, 2012:33 재인용).

### Ⅲ. 가족 관계의 변화와 노년의 고독

중년기는 앞장에서 살펴본 신체적 변화 외에도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복합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생애 전반에 걸쳐 자아실현을 통한 성취감 달성이나 사회 활동의 성과가 절정기에 이르지만 이에 수반되는 기쁨과 보람, 발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좌절과 고통도 함께 경험한다.

이 장에서는 김훈의 <화장>과 <언니의 폐경>에 나타난 가족 관계의 변화에 따

른 좌절과 고통을 통해 중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의 삶에 대한 적응 및 거부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중년기 가족 관계의 변화 양상은 특히 노년의 사고(四苦)<sup>15)</sup>와 깊은 영향 관계에 있다. 특히 김훈 소설에 나타난 중년의 가족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노년의 고독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년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이혼은 이전 생애 시기와는 다른 가족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결혼생활을 되돌아보게 한다. 중년기 부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배우자는 갑작스런 생활상 변화와 충격을 완화하고 잘 적응하게 하는 다른 어떤 관계망의 구성원의 지지보다 효과적이다. 또한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하게 되면서 가족 구성원과의 분리도 나타난다. 결혼해서 떨어져 나간 아들과 딸 사이에는 새로운 관계 정립이란 문제도 발생한다. 이렇게 가족 분리 및 해체로 인한 가족 관계의 재조정 과정에서 중년들은 가정의 위기적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중년의 심리적 변화는 이후 자아정체감의 성숙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sup>16)</sup>

김훈의 <화장>과 <언니의 폐경>에도 가족 관계의 위기 상황에서 중년 남성과 중년 여성의 심리적 변화가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먼저 <화장>의 중년 남성 ‘나’는 아내와 사별 후 홀로 남게 된 상황에서 딸마저 미국으로 가게 되고 중년 후반과 노년의 삶을 자신의 질병과 싸우며 홀로 살아가게 된다. 아내와의 사별이 ‘나’의 가족 해체의 시발점이 되고 노화 과정에서 얻은 질병과 급변하는 사회로 인해 가치관의 혼란 그리고 자녀의 독립 등 가족 관계의 변화가 ‘나’에게 사회적·심리적 위기 상황을 맞게 한다(김희경, 2006). 중년은 인생 주기 상 자신의 내면을 가장 많이 들여다보며 이전에 남의 가치나 세상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에 맞추어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간다. ‘나’ 역시 회사 생활과 가정 생활을 해오면서 자신의 삶이 본래의 자아에 덧칠(化粧)을 하며 허위와 가짜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인식은 새롭게 자아정체감을 정립해 나가는 것으로 발전하지 못한다. 오히려 현실 순응적 자세로 일상의 가벼운 세계로 자신을 빠르게 적응시켜 나간다. 중년 남성 ‘나’에게 일어난 가족 해체의 경험은 내면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지 않고, 성공과 성취가 만능인 현대

15) 노년의 사고(四苦)에는 빈곤고, 고독고, 병고, 무위고가 있다.

16) Erikson은 개인의 자아정체감은 청년기 이후에도 여러 가지 신체, 심리, 사회적 변화를 겪으며 그것에 대응하는 위기가 있으면 성숙해 나간다고 보았다(에릭슨, 2000).

사회에서 자신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인생의 목표와 가치들에 대해 재평가나 재조명 작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나’와 같이 사회적 책임감을 유지하고 있는 중년에게 가족과의 단절 경험은 노년기 고독감과 같은 정서적 위기를 초래하고 직장 은퇴와 같은 사회적 지위가 하락하는 상황이 되면 자아정체감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

이는 중년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생리적 조건 면에서 신체적 노화에 덜 민감하고 가족 관계의 변화에 따른 고민이나 걱정거리에서 한 발 물러나 있기 때문이다. 작품 속 중년 남성 ‘나’도 한 가정을 이루고 많은 시간 동거동락 해온 아내의 삶과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회고하고 안타까워하지 않는다. ‘나’는 아직까지 중년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며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가정적 비극을 정서적 대응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회사 업무에 빠르게 복귀하고 현실에 순응해 나가며 복잡한 내면 갈등을 차단한다. 하지만 이런 ‘나’의 태도는 중년기 가족원의 죽음 경험 즉 가족과의 단절 경험이 자기 성찰이나 생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기회가 되어 노년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에서 보면 분명 한계가 있다.

결국 중년 남성 ‘나’는 가족 단절의 경험을 자아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즉 자아정체성의 위기 상황을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통합하여 해결해 나가지 못한다. 다만 일상의 현실 속에서 사회적 성공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살아간다. ‘나’에게 찾아온 아내 죽음과 딸과의 분리는 그동안 자신의 삶을 지지해왔던 가족 관계가 무화되는 경험으로써 노년의 고독감이나 노화에 따른 질병을 홀로 견뎌야 하는 노년의 고통으로 이어지리란 걸 짐작케 한다. ‘나’와 같이 가족 관계가 해체되어 홀로된 중년 남성은 타인 의존성이 높아져 홀로된 중년 여성에 비해 두려움 속에서 노년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즉 ‘나’와 같이 배우자가 없는 중년 남성은 노년 생활에 적응하기 더욱 더 어렵다.

‘나’의 가족 관계 단절 상황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아내가 몹시 사랑했던 개 ‘보리’를 아내 사후 조금도 망설임 없이 바로 안락사 시키는 장면에서 극대화 된다. 중년 남성 ‘나’의 현실 순응적 자세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나’는 아내와의 추억이나 연민을 보듬고 살아가기보다 현실적으로 홀로 남겨진 자신의 삶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개’의 존재가 부담스러운 것이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묶인 개가 개집에서 뛰쳐나오면서 허리까지

뛰어올랐다. 아내가 없는 집에서 개를 기를 수는 없을 것이었다. 나는 개를 끌고 동물병원으로 갔다. 오랜만의 나들이에 개는 흥분해서 마구 줄을 끌어당기며 앞서 갔다. 나는 수의사에게 안락사를 부탁했다.

“좋은 종자군요. 갈러보지 그러십니까?”

수의사는 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개를 기를 형편이 못 되오. 밥 줄 사람도 없고…….”

수의사는 개를 쇠틀에 묶었다. 겁에 질린 개는 온순하게도 몸을 내맡기고 있었다.

“개 이름이 뭐니까?”

“보리입니다.”

“보리라면?”

“사람으로 태어나라는 뜻이라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답니다.”

의사는 개 목덜미살을 움켜잡고 주사를 찔렀다. (p.49.)

‘나’는 이렇게 그동안 자신의 삶에 지지자였던 가족 관계를 재확인 해 볼 여유 없이 생산성 창출만이 가치 척도가 되어 버린 현대사회에 스스로를 적응시키고 있다. 또한 자신의 내밀한 욕망의 대상이었던 추은주가 회사에 사표를 내고 떠나자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단절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나’의 중년 삶에는 과거의 삶에서 크게 느끼지 못했던 가족 관계의 변화와 주변과의 관계 조정이 이루어진다. 중년의 가족 단절 경험이나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의 소외 경험은 바람직한 노후 생활을 해나가는 데 원동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다가올 노년기에 가족 관계에서 오는 친밀감을 확보할 수 없어 정서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 홀로된 노년 남성은 사회적으로도 소외감을 겪게 되고 제한된 사회적 지원망을 갖게 된다. 이들은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도 노년 여성보다 낮고 믿을 만한 친구를 만날 가능성도 적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남성에 비해 일생을 통해 여러 차례 급격한 변화를 겪는다. 사춘기에 성인 여성으로서 몸이 만들어지고 결혼을 하게 되며 낯선 환경에서 가족 구성원들과 적응해 나가며, 결혼 후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자아 상실을 경험하며 가족원이 떠난 중년기엔 허전하고 공허한 상태에<sup>17)</sup> 놓인

17) 이러한 모습을 Borland(1978)는 ‘빈둥지 증후군’(empty-nest period)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김명자, 1998:29).

다(김명자, 1998). 특히 결혼 이후 가족을 위해 돌봄 노동을 하느라 뺏속까지 누적된 피로감과 고단함은 자신에게 찾아온 가족의 변화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게 한다. 그 중에서도 중년기 부부 관계는 위기에 처해 파국적 상황을 맞기도 하고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적 관계를 유지하며 노년 삶의 질을 확보해 나가기도 한다. 평생을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을 지키며 살아왔던 중년 여성들에게 부부관계는 가족 관계의 중심점 역할을 해왔다.

<언니의 폐경>에 등장하는 중년 여성 두 자매는 배우자와의 사별 혹은 이혼으로 인해 가족 관계가 해체되면서 정서적으로 우울한 상태에 놓여 있다(오경미·김분한, 2007). 이런 상황에서 언니와 ‘나’는 남편의 아내로서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기존에 지녔던 역할에 변화가 생기며 자아정체감도 혼란스럽고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일상을 보낸다. 작품 속 중년 여성들처럼 변화된 가족 구조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청년기 여성들처럼 활발하게 사회와 소통해 나가지 못한다. 이는 아내나 어머니 역할 외에 자기 존재 가치가 새롭게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상실감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언니와 ‘나’와 같은 중년 여성의 삶에 대한 가치를 가정 내 사적 역할로 국한시켜 생산적 가치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과 육아라는 사적인 세계에서만 평가받으며 중년 여성과 같이 성적인 매력을 발산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 안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

그리하여 언니의 경우도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가족 관계가 해체되자 죄책감, 분노, 불안 등과 같은 정서를 외부로 표출하기보다 자신 스스로에게 투사해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의 저하를 보인다. 언니는 사별 이후 내적 방황을 거치면서 동생인 ‘나’와의 자매 관계를 더욱 돈독히 쌓아가며, 그동안 결혼생활에서 유지해 왔던 타인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며 인생의 전환기를 맞는다. 언니는 동생인 ‘나’와의 친밀감을 토대로 서로 의지하며 중년의 상실감과 위기를 연대<sup>18)</sup>로써 극복해 나간다. 사별 이후 언니에게서 보였던 삶의 위태로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지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자아를 재발견하고 일상적 삶의 적응으로 바뀐다. 가정 내 국한되어 있던 자아정체성을 심리·사회적으로 성장시켜 나간다. O’ Connell (1976) 역시 “직업과 가정 외의 활동에 비해 아내, 모친으로서의 가정 역할이 자아정체성의 안정된 기반이 되기 어렵다”고 말한다(최광선, 1997: 21). 작품 속 중년 여성의 ‘자매

18) ‘나’와 언니는 서로 경험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대를 보여준다.

애'처럼 갱년기를 보내는 여성들에게 친밀한 관계(연대) 형성은 중년 여성 삶의 질 확보에 중요하다. 가족 안에서 남편의 그늘에 가려 주체적 모습을 볼 수 없었고 그래서 늘 약한 존재로만 여겨왔던 언니의 존재감이 같은 50대를 살아가는 '나'의 시선을 통해 새롭게 포착된다. 가정의 울타리에만 갇혀있던 언니는 생활 사건을 겪으며 서서히 홀로서기에 나서고 일상생활에 적응해 나가며 가족 관계를 재정립한다. 자신의 인생 전반을 아우르는 통찰적 자세를 보인다.

또한 아래 인용에서 보듯 언니는 젊은 세대인 아들들과도 가치관의 갈등을 겪는다. 언니의 아들들은 젊은 세대로서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으로 힘들어 할 어머니의 슬픔을 위로하기보다 보상금이나 부의금 같은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남편 없이 쓸쓸하게 홀로 지내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위로하지 못한다. 언니의 가족에게도 변화된 핵가족 관념과 세대 갈등으로 인해 가족 간의 분리와 단절이 나타나고 있다. 아들들의 이기적 행태와 시댁 식구들의 파렴치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언니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언니는 정서적으로 위기를 맞지만 침착하고 초연한 자세로 노년에 홀로 살아갈 준비를 한다.

형부가 죽고 나서 언니에게 돌아온 보상금이며 퇴직금은 대부분 조카가 가져갔다. 조카는 언니의 시댁사람들과 싸워서 시댁에서 몰아간 부의금 절반도 기어이 받아내 차지했다. 조카는 돈을 받아낸 날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와, 이래서 여자들한테 집안일을 맡길 수 없다니깐 ..... 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p.54.)

50대 초반의 '나' 역시 평생 외도 경험 없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한 사람에게 성실하기를 소망한 결혼 약속이 깨지면서 부부관계에 변화를 맞는다. 언니의 결혼생활이 형부의 직업상 떨어져 지냈다는 점 외에는 비교적 행복했다면 '나'는 이혼하자는 남편 말이 '일상적'으로 들릴 정도로 그동안의 결혼생활이 무의미했다. '나'는 중년기에 이루어지는 부부 유대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데 실패한 중년 여성이다. 중년기에 오면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들은 몸도 변하고 느낌도 변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변한다. 그러면서 부부관계의 사랑의 약속도 변하게 된다. 이런 이유들로 중년기 부부 관계는 사별이나 이혼처럼 직접적 요인으로 가족 해체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심리적 이혼'이라는 경험도 겪게 된다<sup>19)</sup>(김창엽 외, 2004: 168).

‘나’는 이혼 전까지 딸의 양육과 남편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루는 데 조력자로서 가정생활에만 집중해온 여성이다. 그러다 보니 이혼의 충격은 일상생활 속에서 무력감과 무가치함의 고립적 정서가 작품 곳곳에서 표출된다.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차 이전 생애주기 동안 가족을 돌봄으로써 자기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했던 모습에서 벗어난다. ‘나’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면서 “왜 함께 살아야 하는지를 대답할 수 없었으므로 왜 헤어져야 하는지를 물을 수가 없”어 이혼한다. 또 매년 젊은 여성의 머리카락을 묻혀 오는 외도의 흔적들을 보면서 ‘나’ 자신의 젊음 상실<sup>20)</sup>을 더욱 실감한다(배은경, 1999). 이렇듯 ‘나’는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이혼을 마치 예정된 순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듯 이혼 얘기를 먼저 꺼내는 남편의 말에 크게 충격 받지 않는다.

시어머니 초상을 치르고 나서 한 달 후에 연주는 미국으로 떠났다.  
공항에서 연주를 보내고 돌아오는 날 저녁에 남편은  
- 미안해……

라면서 이혼 얘기를 꺼냈다. 남편이 선택한 시점은 온당해 보였다.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나고, 자식이 눈앞에 없을 때 헤어짐으로써 혈연  
으로 맺어지는 관계들에 대한 상처를 줄이자는 것이 남편의 헤아림이었  
다. 왜 함께 살아야 하는지를 대답할 수 없었으므로 왜 헤어져야 하는  
지를 물을 수가 없었다. (p.36)

‘나’는 남편의 외도 흔적 속에서 젊은 여자들에 대한 환영까지 경험하며 좌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분노나 슬픔에 앞서 “횡하니 빠져나간 세월의 빈자리”<sup>21)</sup>도 경험한다(배은경, 1999: 474). ‘나’에게 아내라는 신분은 그동안 자아개념의 중심에

- 
- 19) 이 과정에서 부부관계는 긍정적인 면에서 이전 시기보다 좀 더 완화되고 부드러워진다. 열린 마음으로 자신에게 솔직해지며 상대방에 대해서 더 이상 환상도 갖지 않고 의무감보다는 자연스러운 열린 관계로 발전된다.
- 20) 2000년대 접어들면서 대중문화에 나타난 중년 여성의 이미지는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었다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몸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아가씨 같은 아줌마’ 담론에는 매끈한 S라인에 경탄과 선망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 21) 중년 여성의 ‘빈둥지증후군’이나 자녀를 독립시키는 것에 대한 분리 불안이나, 성적 일탈이나 쇼핑 중독 또는 외모 콤플렉스 같은 것들이 그동안 미디어에 의해 중년 여성의 위기로 표상되어 온 현상들은 근거 없이 과장되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요구한 것들에 대한 반영이다.

놓여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배신으로 인한 상실감은 사회적으로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준다. 위축감과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모든 행위에 바탕이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나’의 남편은 사회적 성공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 것에 대해 가족들에게 아무런 죄책감도 갖지 않는다. 중년기에 오면 남편들은 아내를 볼 때 여성스러움이 없어지기 때문에<sup>22)</sup> 젊은 여성을 찾아 나선다. 이 시기에 남성들은 젊음의 증거가 되는 성적 주체성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본능에 사로잡힌다. 이런 심리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의 남성다움을 확인시켜 주면 견잡을 수 없이 사랑의 감정에 휘말린다. 중년 남성들은 갱년기를 맞아 노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사회적 성공이나 경제력이 바탕이 되면 자신의 남성성을 확인받으려 하고 그 과정에서 결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다. ‘나’의 남편은 외도가 알려져 부부관계가 파경 국면을 맞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부모와 친척들에게 그리고 회사 사람들에게 아내로서의 역할을 ‘나’에게 부탁한다. 이런 ‘나’의 남편의 이기적 행동은 우리 사회 남성들에게 존재하는 봉건적 가부장제 한 단면이기도 하다. 보통 남편의 외도를 경험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먼저 배우자의 배신에 대한 깊은 분노심을 폭발시키며 자신은 버림받았고 쓸데없다고 느낀다. 게다가 남편에 대해 심리적, 경제적으로 의존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그 중심이 흔들리면서 불안과 초조를 동시에 경험한다. ‘나’ 역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하지는 않지만 생의 전반이 흔들리는 불안 심리를 보인다. 이렇게 남편의 외도는 아내인 ‘나’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사건으로서 성적으로 소외당했다는 피해감과 수없이 남편의 거짓의 대상이 되었던 데서 오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수치심과 굴욕감을 가져다준다.

‘나’의 딸도 성장하여 자신의 인생을 위해 유학을 선택해 독립해 나감으로써 가족 분리는 더욱 가속화된다. 남편으로부터의 소외와 더불어 성장한 딸로부터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감소된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이혼 후 ‘나’는 남편과 딸의 떠남 끝에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 새로운 사랑이라기보다는 ‘나’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남성과 연민에 가까운 관계를 맺는다. ‘나’는 깊은 상실감에서 서서히 빠져 나와 비교적 불안정하지만 중년의 삶에 적극적 태도로 대응해 나간다. 그러나 한편으로 ‘나’는 시댁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는 등 봉건적 가부장제 사회의 편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모습을 달리 해석하면 비록 부부 관계가 파탄되어 시댁 식구와의 관계

22) Carl G. Jung은 40세가 넘으면 여성은 남성성이, 남성은 여성성이 드러나게 된다고 본다(김경희, 1999: 293).



가 훼손되었다라든가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맺었던 관계를 주체적으로 해석하여 새롭게 ‘자아’ 발견과 존재감 확보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나’의 면모는 언니가 중년의 삶에 초연함과 관조적 자세로 적응해 나가는 태도와 대비된다. ‘나’는 노화로 인한 질병과 가족 관계의 해체로 정서적 위기감을 경험하지만 그러한 상황에만 매몰되지 않는다. 작가는 ‘나’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중년 여성을 사회적 가치에서 배제시키고 ‘타자’로 대상화하는 상황을 비판하고 중년 여성 스스로도 자기 비하적 사고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엔 작품 속 ‘나’와 같이 자신을 정당하게 사랑할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하다. ‘나’는 작품 속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성으로 등장한다. 남편의 외도와 딸의 이기적 행동에 분노로 응대하기 보다는 이성을 잃지 않고 냉정함과 평정심을 유지하는 모습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새롭게 시작한 이성 관계인 ‘그이’와의 중년의 사랑도 젊었을 때의 사랑 방식과는 다르다. ‘나’는 중년의 위기 앞에서 ‘아무런 대상도 아니고 아무 사람도 아닌 것 같’은 의미로 관계를 형성한다. 다만 ‘한쪽 다리로 선 새’와 같은 ‘나’의 불안한 모습과 ‘그이’의 모습이 닮았다고 느끼면서 고독한 중년에 동반자적 관계라 여긴다. ‘그이’는 성공지상주의가 팽배한 사회 안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받기 쉬운 중년 남성이다. ‘그이’는 일찍 부인과 사별하고 홀로 딸을 키워 출가시키는 중년 남성으로서 인생에서 사회적 성공만 부각되는 시각으로 보면 소외된 자이다. ‘나’는 이런 ‘그이’와의 관계를 성급하게 발전시키지 않고 더군다나 중년기 재혼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 ‘나’와 ‘그이’의 관계는 중년의 자아성찰 과정에서 존재론적 동질감에서 비롯된 연민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중년의 우울감을 극복하고 노년 삶의 질을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나’는 가족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소외감을 새로운 남성과의 만남이나 자매애를 통해 다양한 ‘친밀성’을 확보하며 극복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언니와 ‘나’의 교류는 중년 여성들 간의 연대로서 노년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갖게 하고, ‘나’ 자신의 주체적 삶을 찾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젊은 세대와 중년 세대의 차이는 언니의 아들뿐만 아니라 ‘나’의 딸 연주에게서도 나타난다. ‘나’의 딸은 엄마와 아빠 사이의 관계가 어긋나 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위해 객관적 거리를 둔다. 결국 유학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이혼 소식을 듣게 되자 이기적이고 냉정한 태도를 보인다.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무런 애정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꼴을 보면서 저도 울적했고 두 분의 딸이라는 운명에 신바람이 나지도 않았어요. 저도 피해자라는 걸 알아주세요. 하지만 이제 와서 두 분이 각자의 길을 따로따로 정해서 간다고 해서 두 분의 앞날이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무슨 수가 있을까요. 어린 딸년의 시건방진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얻는 것과 잃는 것, 얻을 수 있는 것과 얻을 수 없는 것들 사이의 관계를 깊이 헤아려 주세요. (p.28.)

‘나’의 딸은 부부 관계를 철저히 계산된 관계로 이해하는 젊은 세대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나’의 딸은 편지로 부모가 이혼하면 학비를 재산 분할 비율에 따라 요구하겠단 말을 전한다. ‘나’는 변해버린 딸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딸을 임신했을 때 심하게 겪었던 입덧의 기억을 떠올리고, ‘내 몸속에 붙었던 그 어린 물고기와의 같은 유기물이 이 편지를 보내온 연주라는 사실을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없었다. 언니와 ‘나’ 같은 중년 세대가 아직까지 전통사회의 가족 관념에 기대어 사고하고 판단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언니와 ‘나’는 장례 과정이나 이혼 과정에서 끝까지 가족이나 타인들과의 관계를 존중하며 최선을 다하는 데 반해 아들과 딸인 젊은 세대는 개인적 욕구를 스스럼없이 표출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데 급급하다.

이런 젊은 세대들의 이기적 태도는 작품 속에서 얼마가지 않아 논리적 모순성에 직면한다. 젊은 세대는 중년 삶의 연륜에서 묻어나는 지혜 앞에서 무기력해진다. 언니의 아들은 친척들에게 빼앗긴 부의금을 찾아오며 ‘이래서 여자들한테 집안일을 맡길 수 없다니깐 ...’라며 어머니의 존재를 무시하는 가부장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 첫돌 잔치에서 어머니가 손자의 목숨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 함부로 말했던 것을 후회하게 만든다. 언니는 손자의 위급한 상황에서 젊은 아들 내외가 발만 동동 구를 때 아기의 목에 걸린 ‘가이바시라(관자)’를 능숙하게 토해내게 한다. 그야말로 ‘불경을 신고 가던 우리 집 늙은 암소’의 모습으로 ‘연화장 세계’에 들어가기 전의 냉정함과 민첩함을 보인다.

이상과 같이 <언니의 폐경>에서는 50대 두 중년 여성이 인생의 전환기를 맞아 가족 관계의 해체를 경험하며 절망, 불행감, 무력감, 방황, 피해의식, 상실감 등의 정서적 고통을 서로의 방식으로 극복해 나가며 의지한다. 언니는 인간에게 찾아오는 무자비한 죽음을 간접 경험하며 허무감 속에서 초연한 자세로 가족 관계를 재정립

해 나가고, ‘나’의 경우는 이혼으로 인한 가족 관계의 파탄을 새로운 중년의 사랑으로 극복해 나간다. ‘나’의 새로운 연인 관계는 남녀 간의 성적 욕망뿐만 아니라 노년의 고독을 함께 극복해 갈 관계로서 홀로된 중년의 삶에 서로 소통하고 의지해 나갈 수 있는 관계로 재정립된다.

#### IV. 맺음말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령 인구의 증가와 노년에 대한 관심은 인생주기의 연속선상에서 이전 시기인 중년층에 대한 관심도 불러왔다. 중년은 더 이상 자신이 더는 젊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생의 양면성을 복합적으로 드러내며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변화가 많은 시기이다. 그야말로 인생의 전환기로서 중년 삶의 경로는 수정되고 보완되어 노년기로 이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50대 중년의 삶은 60대 이후 인생을 마무리하는 노년 단계에 가지는 자아통합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매듭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50세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신체적으로는 노화로 인한 질병이 생겨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삶에 지지를 보냈던 가족 관계에는 분리와 해체가 이루어지며 정서적으로도 위기를 경험한다.

본고에서는 이런 50대 중년 남성과 중년 여성의 삶을 김훈의 <화장>과 <언니의 폐경>을 통해 살펴보았다. 작품 속 인물들은 중년의 신체적 변화 즉 노화 과정 속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별 차이를 보이며 중년의 위기감을 극복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중년 남녀의 인식은 이전 시기의 생애 경험의 축적과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주변인의 죽음 경험 등으로 개인차를 드러냈다. 또한 이 두 작품에 등장하는 중년 남성과 중년 여성의 심리 상태를 살펴본 결과, 중년 여성의 우울감이 중년 남성보다 더욱 심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는 중년 여성 대부분이 주로 가정 내 역할만 수행하다가 중년기를 맞아 ‘폐경’과 같은 확실한 신체적 변화와 함께 다양한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언니의 폐경>의 중년 여성들은 가족의 죽음이나 배우자와의 이혼 그리고 가족구성원의 독립으로 인해 가족의 해체와 단절이 일어남으로써 심한 상실감에 빠져 있다.

<화장>의 중년 남성 ‘나’를 통해서도 중년기 경험하게 되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인

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죽어가는 아내의 육체적 고통을 지켜보며 인간의 소멸 즉 죽음의 문제에 객관적 거리를 두며 냉정한 태도를 유지해 나갔다. 반면 젊은 여성에게서 품어 나오는 강한 생명력에 대해서는 주관 과잉의 서술로 동경의 시선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현대사회의 죽음 문제가 개개인의 개별적 문제로 나타났다. 그러나 작가는 진정성 없는 일상 현실에서 오는 가벼움과 삶을 다 마친 후 죽음에서 만나는 초월적 가벼움의 의미를 모호하게 처리하며 중의적 표현을 성공적으로 형상화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화장>의 ‘나’가 인식하는 죽음의 가벼움이 전 생애를 두루 경험하면서 획득한 초월적 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는 ‘나’가 인생의 전환기에 노화로부터 시작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로 정체감의 위기를 경험하며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재정립하는 과제를 해결해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언니의 폐경>의 언니와 ‘나’는 가족 관계의 해체를 맞지만 홀로된 중년의 삶을 자매애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해 나가며 중년의 정신적 불안을 극복해 나갔다. 물론 중년의 위기에 대응해 가는 방식은 언니와 ‘나’에게 차이가 나타난다. 특히 화자 ‘나’는 새로운 이성과의 만남을 통해 동질감을 바탕으로 노년의 고독에 대응해 나갔다. 또한 두 여성 모두는 중산층에 속하는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가족 관계의 단절 이후에도 노년에 홀로 살아가며 경제적 궁핍을 경험하지 않을 거란 전망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 역시 다가올 노년의 일상에 드리울 삶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안감과 두려움을 쉽게 떨쳐내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화장>에서는 중년 남성으로 보이는 서술자가 <언니의 폐경>에서는 중년 여성으로 보이는 서술자가 중년의 다양한 경험들을 서술하는 가운데 서술자의 성별 차이를 보여주었다. 기존에 중년을 연구하는 여러 논자들이 언급했듯이 중년기라는 발달 단계에서 남성과 여성은 중년의 경험들을 다르게 인식한다. 두 작품 속에서도 중년 여성들은 중년의 신체적 변화인 ‘폐경’을 전후로 또 가족 구성원과 관련된 부정적 생애사건들로 인해 정신적 갈등을 겪으며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지만, 중년 남성들은 사회적 역할 변화(은퇴, 실직)와 같은 경험이 아닌 신체적 변화나 가족 관계의 변화에서 심각한 위기감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전환기에 자신의 과거 삶과 현재, 그리고 곧 도달하게 될 노년의 삶을 전망하는 데 중년 남성은 자기성찰적 자세를 극명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 참고문헌

- 강혜숙. 2008. “세 가지 어법과 감각의 서사”. 『돈암어문학』 통권 제21호.
- 김경민·한경혜. 2004. “중년기 남녀의 가족생활사건 경험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4권 3호.
- 김경희. 1999. 『발달심리학』. 학문사.
- 김경수. 2006. “중년 탐색의 허와 실”. ≪황해문화≫ 가을호.
- 김명자. 1998. 『중년기 발달』. 교문사.
- 김순이·이정인. 2007. “중년기 성인의 노화불안, 우울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기본간호 학회지』 제14권 제1호.
- 김애경. 2008. “중년 여성의 폐경 경험에 대한 이론적 접근”, 『대한기본간호학회지』 제15권 3호.
- 김은정. 2011. “현대소설의 병리적 상징성 연구-김훈의 <화장>을 중심으로”. 『배달말』 48호.
- 김정영. 2010. “중년여성들의 일상적 대화의 의미 : 아줌마들의 ‘목욕탕 수다’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 김창엽·이혜경·정진웅. 2004. “좌담-성공을 욕망하는 위기의 중년”. 누리미디어.
- 김형일. 2010. “중년여성의 정서적 위기감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제19집.
- 김훈 외. 2004. 『이상문학작품집』 28회. 문학과 사상사.
- 김훈 외. 2005. 『황순원문학상 수상작품집』. 중앙일보 문예중앙.
- 김희경. 2006. “중년 남성과 중년 여성의 우울과 신체적, 사회·심리적, 인지적 요인 비교”. 『성인간호학회지』 제18권 제3호.
- 배은경. 1999. “중년 여성을 보면 한국이 보인다?(여성을 위한 모임 지음. 『제3의 성-중년 여성 바로 보기』(현암사, 1999)”. 『당대비평』 통권 제8호.
- 송명희. 2012. “김훈 소설에 나타난 몸 담론”. 『인문학자, 노년을 성찰하다』. 푸른사상.
- 서혜경. 2009. 『노인죽음학개론』. 경춘사.
- 심진경. 2005. “경계에 선 남성성”. 『여성, 문학을 가로지르다』. 문학과 지성사.
- 여성을 위한 모임 지음. 1999. 『제3의 성-중년 여성 바로 보기』. 현암사.
- 오경미·김분한. 2007. “중년 여성의 배우자 사별 의미에 대한 주관성 연구”. 『주관성

연구』 통권 제14호.

이미란. 2009. “창작 소설의 평가 기준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2집.

이필규. 2004. “서술화하는 육체와 서술화되는 육체의 비극-김훈. 『화장』”. 『제3의문학』 통권 16호.

정성호. 2010. 『중년의 사회학』. 살림출판사.

정재림. 2005. “삶과 죽음의 변증법”. 『문예연구』 통권 46호.

최광선. 1997. “중년기 여성이 보고하는 자아정체감의 변화”. 『사회과학』 제9집.

최영자. 2009. “이데올로기적 환상으로서의 김훈 소설”. 『우리문학연구』 26집.

최신덕 역. 1985. 『노년사회학』. 경문사.

통계청. 2005.1. “장래인구특별추계결과”.

한경혜·이정화. 2012. 『지금, 중년을 말할 때』. 교문사.

허명숙. 2011. “소설이 죽음을 사유하는 방식”. 『한국문예비평연구』 제34집.

노베르트 엘리아스. 2011. 『죽어가는 자의 고독』. 김수정 옮김. 문학동네.

에릭슨·스키너·로저스. 2000. 『노년기의 의미와 즐거움』. 한성열 옮김. 학지사

크리스 설링. 1999. 『몸의 사회학』. 임인숙 역. 나남출판.

(2013. 10. 14. 접수, 2013. 11. 21. 심사, 2013. 12. 06. 채택)

## Abstract

**The Change of Physical Conditions and Family Relationship Demonstrated in <The Hwajang> and <The Menopause of My Elder Sister> written by Kim Hoon: The Focus of Identity Crisis of Middle Age and the Prospectus of the Late Life.**

*Park, Sun-A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Kim, Cheong-Seok, Dongguk University*

Middle age is considered to be a time of having economic stability as well as spiritual room that can be hardly afforded in early stage of life. Many believe that mid-life as a prime time of life provides opportunity to reflex his/her own life back and gain wisdom. At the same time, for that reason, middle age is well known as the time to experience self-identity crisis with the anxiety of aging and lack of preparation for later life. The present study, through the analysis of two novels <The Hwajang> and <Menopause of My Elder Sister> written by Kim Hoon, approaches how the persons in middle age come to feel crisis of life and identity by observing psychical aging process of others and themselves. The study also explored the patterns of emotional disturbance coming from bereavement and separation of family members.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figures in middle age respond to the middle of crisis in different way by gender. Their perception of and adaption to the middle of crisis differ by accumulated life experience, current life style and the bereavement of close persons. In addition, women in middle age appears to experience more severe depression than men in that age. The 'I' in the <The Hwajang> facing his wife's pain for upcoming death, tries to set a distance from death. He adapts himself to the reality by perceiving life is in vain. He does not look back his family life with wife or the process to make an achievement for his social status. Furthermore, he does not have any prospectus to make his remaining life mature.

Meanwhile, the 'I' in the <The Menopause of My Elder Sister> tries to overcome

psychological anxiety through the sisterhood and intimacy with her widowed sister. In particular, the 'I' a divorced middle age women also tries to prepare solitude in old age through meeting with a divorced man. This shows that women who experience marital dissolution and is expected to live alone in old age tend to adapt more quickly to changes in family than their counterparts do.

Key Words: middle age, old age, aging, idetntity crisis, anxiety for death, family relations